

KIEP

오늘의 世界經濟

World Economy Update

제 05-02 호 / 2005년 3월 9일 발간

韓-헝가리 정상회담: 양국간 IT산업 협력증진의 계기

작성자 : 세계지역연구센터 이철원 전문연구원
【cwlee@kiep.go.kr, ☎3460-1071】

主要內容

- 3월 9일 헝가리의 주르차니(Ferenc Gyurcsány) 총리 訪韓과 3월 10일 韓-헝가리 정상회담은 EU신규회원국 헝가리와 한국과 경제협력증진의 좋은 계기가 될 것임.
 - 헝가리의 지정학적 위치, IT부문의 급성장 추세와 잠재력, 헝가리 정부의 IT산업 육성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르차니 총리의 방한으로 특히 IT부문에서 양국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구체화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정책, 시장 및 기술 측면을 고려하여 IT 부문에서 헝가리와의 협력이 유망한 인터넷서비스,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등 3개 부문을 對헝가리 IT부문 협력 핵심부문으로 선정, 이에 대한 집중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정책 측면에서는 헝가리 정부의 집중 육성여지가 확고한 인터넷서비스 부문, 시장 측면에서는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무선통신 부문, 기술 측면에서는 헝가리의 고급인력에 의해 개발이 한창인 소프트웨어 부문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됨.
- 양국간 IT부문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협력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정부간 협력 채널로 그동안 두 차례 개최된 양국간 IT 차관회담을 정례화해야 함.
 - 한국 IT업체들의 헝가리 진출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법으로 헝가리에서의 IT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적극 검토하고 IT협력단 파견을 통해 한국업체와 헝가리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공동 관심분야를 개발하고 산학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함.
 - 한국과 헝가리 IT부문의 상호보완적 연구인력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한국의 하드웨어와 헝가리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1. 개요

- 헝가리의 주르차니(Ferenc Gyurcsány) 총리 訪韓과 韓-헝가리 정상회담은 EU 신규회원국(2004년 5월 가입)인 헝가리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의 좋은 계기가 될 것임.
 - 3월 9일부터 12일까지 헝가리의 주르차니 총리가 방한, 삼성SDI 및 미래 IT 방문(3월 9일), 정상회담(3월 10일), 경제인 접견(3월 11일)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임.
 - 특히 韓-헝가리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인바 이번 방한으로 양국관계가 한 차원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헝가리는 당시 중·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로는 최초로 1989년 2월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 우리 북방외교의 시초가 되었으며, 현재 헝가리는 중·동구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제1위 교역상대국임.
- 헝가리는 서유럽과 동유럽,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 2004년 5월 EU에 정식으로 가입함에 따라 헝가리는 EU의 새로운 동쪽 국경선을 형성, CIS 지역의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함.
 - 이에 따라 헝가리는 EU시장의 진출 거점인 동시에 CIS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
 - 헝가리는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등의 발칸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바, 유럽의 마지막 신흥시장인 발칸지역 진출의 거점이 될 수 있음.
- EU 가입과 함께 헝가리는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숙련된 노동력확보 용이 등의 이유로 다국적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진출지역 중의 하나가 됨.

- 독일, 영국을 비롯한 EU국가들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서방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EU확대에 대비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헝가리로 대거 이전시켜 왔음.
- 한국기업들도 최근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기존 유럽의 공장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은 삼성전자의 영국 웨일즈 공장, 삼성SDI의 독일 베를린 공장, 삼성전기의 포르투갈 공장들을 점진적으로 헝가리로 이전하고 있음.

□ 헝가리의 IT산업은 최근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잠재력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됨.

- EITO(European Information Technology Observatory) 자료에 의하면, 헝가리 IT시장 규모는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13.7%와 11.6% 성장하였으며, 최근까지 10% 이상의 고성장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처럼 헝가리 자체의 IT산업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EU가입에 의한 시장 확대로 헝가리 IT산업의 성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헝가리 정부는 최근 적극적인 IT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해 통신시장을 전면 개방함.

- 2002년 4월 현정부 출범과 함께 IT산업 육성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T부를 신설함.
- 헝가리 IT부는 2005년 IT 관련 개발프로젝트에 200-220억 포린트(약 9,780만 달러에서 1억 758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힘.
- 2002년 1월 헝가리는 통신규제제도를 EU기준에 일치시키기 위해 새로운 통신법을 발효시켰으며, 2003년 1월부터 통신시장 진입은 완전 자유화되었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주르차니 총리의 방한으로 특히 IT부문에서 양국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구체화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헝가리의 IT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과 헝가리의 IT산업협력의 기본 방향과 구체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2. 헝가리의 IT산업 현황

□ 헝가리 IT산업의 빠른 성장세

- EITO(European Information Technology Observatory) 자료에 의하면, 헝가리 IT시장 규모는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13.7%와 11.6% 성장하였으며, 최근까지 10% 이상의 고성장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헝가리 IT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통신서비스 시장으로 약 65%를 점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신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EITO에 따르면, 2001년에 15.3% 성장한 통신서비스 시장은 2002년과 2003년에도 각각 11.1%와 9.4% 성장하였음.

<표 1> 헝가리의 IT시장 규모

(단위: 백만 유로)

	1999	2000	2001
기간통신서비스	1,700	1,928	2,154
기타 통신서비스	336	391	447
통신서비스시장 총합	2,036	2,319	2,601
소프트웨어	153	170	187
장비시장	924	1,052	1,164
IT시장 총합	3,113	3,541	3,952

자료: EITO, "European Information Technology Observatory 2001", 20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계에서 재인용.

□ 헝가리 IT산업의 잠재력

- 헝가리 자체의 IT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EU가입에 의

한 시장 확대에 헝가리 IT산업의 성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헝가리에서도 유무선 대체현상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PC 보급률과 인터넷 보급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IT시장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헝가리의 통신서비스시장 규모

(단위: 백만 유로)

	1999	2000	2001	2002	2003
유선전화	1,106	1,047	1,045	1,028	1,027
무선전화	640	729	1,030	1,274	1,465
데이터 교환/전용회선 임대	100	118	137	158	178
케이블 TV	114	141	160	175	201
기간통신서비스 총합	1,960	2,035	2,372	2,635	2,872
기타 서비스	153	425	465	518	577
통신서비스시장 총합	3,113	2,460	2,837	3,153	3,449

자료: EITO, "European Information Technology Observatory 2002", 20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계에서 재인용.

□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IT산업 육성정책

- 2002년 4월 현정부 출범과 함께 IT산업 육성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T부를 신설함.
- 헝가리 IT부는 2005년 IT 관련 개발프로젝트에 200-220억 포린트(약 9,780만 달러에서 1억 758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힘.
 - 상기 자금은 주로 공공네트워크시스템과 국가인터넷서비스프로그램 개발, 전자결제정보시스템 개발, IT부문 중소기업 지원금, 'e-economy'와 'e-trading' 개발 등에 지원될 예정임.
 - IT부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04-2006년 동안 약 125억 포린트가 지원될 예정임.

□ 헝가리 통신시장의 자유화

- 통신부문은 거대 초기자본의 투입이 필요하여 외국자본의 유입이 필수적

인바, 헝가리는 이를 위해 규제제도의 명확성, 투명성, 공평성을 강화함.

○ 헝가리 정부는 1989년 통신시장의 사업부문과 정책규제부문을 분리하였고, 1990년 통신·우편·방송 부문간 사업을 분리하였음.

- 또한 헝가리 정부는 1993년부터 통신부문의 정부운영에 의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사업자의 민영화를 추진함.

- 2002년 1월 헝가리는 통신규제제도를 EU기준에 일치시키기 위해 새로운 통신법을 발효시켰으며, 2003년 1월부터 통신시장 진입은 완전 자유화되었음.

가. 인터넷서비스

□ 아직까지 열악하기는 하지만, 시장 측면에서 헝가리에서 최근 가장 급성장하는 산업이 인터넷서비스 부문임.

- 2002년 68% 성장하여 210억 포린트(약 8천만 달러)에 달했던 인터넷서비스 시장규모는 최근에는 매년 100%에 가까운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02년 인터넷망 가입자 수는 전년보다 39% 증가한 44만 6천명에 이르렀으며, 인구 천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는 1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2년 현재 통신부문이 헝가리에서 제공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의 45%를 담당하고 있으며, IT 부문이 31%를 담당하고 있음.

- 통신부문에서 9개의 대규모 공급업체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간 규모의 공급업체들은 47%가 통신부문, 27%가 IT부문, 그리고 26%가 기타 부문임.

- 소규모 공급업체들은 39%가 IT부문, 32%가 통신부문, 그리고 29%가 기타 부문임

<표 3>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체 현황

		데이터 공급 관련 업체(개)	데이터 공급업체 (개)	가입자 (명)	순소득		종업원 수	
					인터넷 서비스 관련 (백만 포린트)	전체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터넷 서비스 관련(명)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부문별	통신부문	41	28	421,406	18,647	5.3	357	7.0
	IT부문	23	19	15,137	2,010	53.1	129	41.5
	기타	16	15	9,320	372	4.1	82	19.4
규모별	대규모	9	9	401,424	15,898	5.1	273	7.6
	중간규모	15	15	36,902	3,919	15.5	121	7.7
	소규모	56	38	7,537	1,212	4.3	174	25.4
총 계		80	62	445,863	21,028	5.7	568	9.7

자료: 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KSH)

□ 2002년 말 현재 44만 6천명의 인터넷망 가입자 가운데 73%가 비용이 저렴한 모뎀전화연결에 의해 인터넷망에 접속하였고 단지 8%만이 광역 ISDN 회선을 통해 접속하였음.

- 이밖에 케이블 TV와 xDSL을 통해 각각 7%의 가입자들이 인터넷망에 접속하였고, 나머지 1%는 임대회선, 그리고 4%는 기타 경로를 통해 접속하였음.

□ 헝가리 인터넷망 가입자들은 2002년 동안 전화회선을 통해 총 1억 9천만 번 인터넷에 접속하였고, 인터넷망 접속시간은 총 60억 분에 달했음.

- 이 시간동안 파일, 프로그램, 이메일, 홈페이지 등 총 5억 8,500만 메가바이트의 데이터가 다운로드 되었으며 7,200만 메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전송되거나 업로드 되었음.

□ 전체 44만 6천 명의 인터넷망 가입자들은 2002년 동안 총 685개의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였는데, 이 가운데 40만 천 명의 가입자들이 대규모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체의 218개 서버(전체 서버의 31%)를 통해 접속함.

- 또한 3만 7천 명의 가입자가 중간 규모의 공급업체 서버 206개(전체 서버의 약 30%)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함.
- 나머지 8천 명의 가입자들은 가입자 천명 미만의 소규모 공급업체 261개 서버(전체 서버의 38% 이상)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함.

<표 4> 규모별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체의 접속형태별 가입자 수

		총가입자	접속형태								
			모델	ISDN	xDSL	X.25	VSA T	AM- Micro	케이블 TV	임대 회선	기타
대 규 모	2000	194,493	173,536	19,599	..	0	0	0	0	1,358	0
	2001	273,570	227,419	26,244	..	0	12	0	13,775	1,345	4,775
	2002	401,424	297,639	32,009	28,548	..	0	0	25,540	3,420	14,268
중 간 규 모	2000	29,861	23,840	709	..	0	0	4	4,828	406	74
	2001	39,453	31,631	1,109	..	0	0	15	3,193	1,078	2,427
	2002	36,902	25,331	1,506	3,179	..	0	20	4,996	717	1,153
소 규 모	2000	5,755	4,377	530	..	0	12	6	586	230	54
	2001	8,651	6,140	839	..	0	1	6	603	685	377
	2002	7,537	4,510	1,034	327	..	0	16	654	350	646
계	2000	230,109	201,713	20,839	..	0	12	10	5,414	1,994	128
	2001	321,674	265,190	28,192	..	0	13	21	17,571	3,108	7,579
	2002	445,863	327,480	34,549	32,054	..	0	36	31,190	4,487	16,067

자료: 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KSH)

나. 무선통신

□ 인구 천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헝가리는 2000년에 인구 100명당 29.6명에 불과했던 무선전화가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에 이미 700만 명을 넘어섬.

- 이러한 무선전화가입자 가운데 78%는 선불카드를 통해 무선전화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가 후불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선불카드를 통한 무선전화 이용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헝가리 이동통신시장에는 1개의 아날로그 사업자와 3개의 디지털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헝가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3개의 디지털 사업자 가운데 Westel이

47.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Pannon GSM(36.9%)과 Vodafone(15.6%)이 추격하고 있음.

- 헝가리의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은 Nokia가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고급형, 다기능 제품으로 수요가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어 삼성의 폴더형 단말기 등도 호평을 받고 있음.

<표 5> 헝가리의 이동통신시장 현황

사업자	방식	설 립 연 도	가입자 수(천 명)					
			증가율(%)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Westel 450	NMT-459	1990	80	94	99	82	57	40
			-	17.35	5.63	-17.31	-30.49	-29.82
Westel 900	GSM-900/ 1800	1994	345	497	748	1,350	2,200	3,200
			-	44.06	50.50	80.48	62.96	45.45
Pannon GSM	GSM-900/ 1800	1994	228	350	550	1,000	1,680	2,453
			-	53.51	57.14	81.82	68.00	44.29
Vodafone Hungary	GSM-900/ 1800	1999	-	-	-	130	337	640
			-	-	-	-	159.48	89.73
계			653	941	1,397	2,562	4,274	6,333
			-	44.08	48.50	83.37	66.84	48.18
무선보급률(%)			6.47	9.32	13.83	25.37	42.59	63.10

자료: Mobile Communications, "Mobile Communications guide to east European cellular subscribers", 1996 ~ 20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 2003-6-2에서 재인용.

다. 소프트웨어

- 1990년 이후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헝가리에 진출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함.

- 첫 번째 단계에서 다국적기업들은 IT산업 공급자로서 헝가리에 진출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헝가리에 조립공장을 건설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를 헝가리로 이전시키고 있음.

- 최근 IT산업의 유럽 개발거점으로 헝가리 연구본부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헝가리에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에는 Nokia, Siemens, Ericsson 등이 있음.

- 이밖에도 IBM, Oracle, Siemens-Sysdata, SAP 등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센터를 헝가리에 가지고 있고, Microsoft가 헝가리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Compaq, EDS, Debis 등이 헝가리에서 시스템 통합과 아웃소싱 공급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표 6> 헝가리의 컴퓨터 관련업체 현황

년도	업체 수	순매출(백만 포린트)	고용(명)
1999	5,636	243,610	18,010
2000	6,307	262,459	20,190
2001	7,176	364,660	24,055
2002	8,295	466,627	26,536
2003	9,462	498,390	28,482
규 모 별 현 황 (종 업 원 수)			
1-9명	8,963	188,444	13,220
10-19명	286	51,323	3,528
20-49명	149	89,552	3,951
50명 이상	64	169,071	7,783

자료: 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KSH)

<표 7> 컴퓨터 관련업체의 분야별 매출 현황

활동 분야	순매출(백만 포린트)		수출(백만 포린트)	
	2002	2003	2002	2003
기본 프로그램	1,578	5,525	101	4,144
응용 프로그램	13,364	19,765	615	844
데이터-프로세싱 도큐멘테이션	1,448	211	0	26
기타 소프트웨어 생산	1,364	4,920	294	1,333
소프트웨어 생산 합계	17,754	30,421	1,010	6,347
컴퓨터 기법에 의한 데이터 생산	4,041	3,450	250	10
총생산	21,795	33,871	1,260	6,357
하드웨어 컨설턴시	5,216	5,964	0	877
소프트웨어 컨설턴시 및 공급	193,895	133,090	25,665	24,469
데이터 프로세싱	16,481	48,835	2,135	1,026
데이터 활동, 온라인 방송	3,897	5,742	730	113
사무실 유지, 보수, 회계, 기계 관리	14,186	17,203	213	352
기타 컴퓨터 관련 활동	61,567	87,024	2,569	3,295
총서비스	295,242	297,858	31,312	30,132
기본활동(총생산+총서비스)	317,037	331,729	32,572	36,489
기타 활동	149,590	166,661	4,720	13,061
순매출 합계	466,627	498,390	37,392	49,550

자료: 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KSH)

- 헝가리에는 소프트웨어 부문에 전문가와 숙련된 노동력이 풍부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활용가치도 충분함.
- 2002년 현재 공학·기술(engineering and technology) 분야의 R&D 기관이 645개에 달하고, 총 종사자 1만 3,442명 가운데 과학자 및 엔지니어는 8,117명에 이르며, 이들 기관의 총 지출은 709억 포린트(약 2억 7,481만 달러)에 달함.
- 이들 기관 가운데 소프트웨어 관련 기관은 150개, 총 종사자는 3,830명(과학자 및 엔지니어는 2,925명)에 이르며, 총 지출은 293억 포린트(약 1억 달러)에 달함.
- 헝가리의 IT기업협회(Hungarian Association of IT Companies; IVSZ)에 따르면, 2001년에 틈새시장을 겨냥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262개에 달함.
- 2002년 헝가리의 총 특허출원 건수는 10,784이고, 상용화된 건수도 5,906건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100건이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특허였음.

3. 한-헝가리 IT산업협력 기본 방향

가. 기본 전략

- 정책, 시장 및 기술 측면을 고려하여 IT 부문에서 헝가리와의 협력이 유망한 부문을 선정, 이에 대한 집중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함.
- 정책, 시장 및 기술 측면에서 유망한 인터넷서비스,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등 3개 부문을 對헝가리 IT부문 협력 핵심부문으로 선정함.
- 정책 측면에서 헝가리 정부의 집중 육성 의지가 확고한 인터넷서비스 부문이 유망함.

- 헝가리는 지식기반경제 육성을 위해 ICT 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인프라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 아직까지 인터넷서비스 공급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편이나, 시장 측면에서도 헝가리에서 최근 가장 급성장하는 산업이 인터넷서비스 부문임.

□ 시장 측면에서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무선통신 부문이 한계에 이른 중국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헝가리를 거점으로 동유럽 시장을 개척함은 물론 서유럽 시장의 진출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무선통신기기는 우리의 3대 수출품목이고 중국은 미국에 이어 2대 무선통신기기 수출시장이나 이미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확대는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됨.

- 이에 최근 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유럽 시장 개척을 위해 헝가리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술 측면에서 헝가리에서 다국적기업과 헝가리의 고급인력에 의해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소프트웨어 부문의 협력이 유익할 것으로 기대됨.

- 헝가리는 동구권에서 전통적으로 컴퓨터 부문의 선두주자였으며, 최근에는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헝가리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진출함.

- 서유럽 기업들의 아웃소싱 공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헝가리는 소프트웨어 부문에 전문가와 숙련된 노동력이 풍부함.

나. 핵심부문 선정 근거

1) 인터넷서비스

□ 지식기반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ICT 환경개선에 주력함.

- 헝가리는 저임금, 저비용에 의한 FDI 유입이 최근 들어 한계에 이르러

첨단산업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산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현재 인터넷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편이나, 인터넷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집중적인 인프라 개선이 추진될 예정임.

- 헝가리 정부는 매년 약 5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을 IT 인프라 구축사업에 배정하고 있으며, IT 인프라 구축 관련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1996년에 시작된 'Sulinet' 프로그램에 의해 중등학교에 인터넷 직접접속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초등학교의 인터넷 접속시스템을 완료함.

□ EU는 지난 2004년 5월 가입한 신규회원국들의 각 부문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기관(Center of Excellency)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고 있는데, IT 부문에서는 헝가리 과학아카데미 산하의 컴퓨터·자동화연구소(Computer and Automation Research Institute; SZTAKI)가 선정됨.

- EU는 'eEurope 2005'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약 18억 유로의 기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헝가리에 약 6,300만 유로가 지원될 예정임.

2) 무선통신

□ 무선통신기기(MTI 코드 812)는 MTI 3단위 기준으로 자동차(741), 반도체(831)에 이어 한국의 3대 수출품목임.

- 2003년 전년대비 37.3% 증가한 187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였던 무선통신기기는 2004년에도 전년대비 40.3% 증가한 262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함.

- MTI 4단위 기준으로는 무선전화기(8121)가 집적회로반도체(8311)와 승용차(7411)에 이어 한국의 3대 수출품목임.

- 중국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무선통신기기의 2대 수출시장이나 최근 들어 중국 수출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시장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 2003년 우리나라는 중국시장에 3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무선통신기기를 수출하였음.
 - 2001-2002년 무려 300% 내외의 급격한 신장세를 보였던 우리의 무선통신기기 對중국 수출은 2003년에 전년대비 40% 증가로 둔화된 이후 2004년에는 전년대비 12.5% 증가에 그치고 있음.
 - 특히 2002년에 무려 1,212%의 증가를 기록하였던 무선전화기의 對중국 수출은 2003년에 3.2% 감소를 기록한 뒤, 2004년에는 58.4%라는 대폭적인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음.
- MTI 3단위 기준으로 무선통신기기는 한국의 對헝가리 최대 수출품이며, 헝가리 인근 국가들로의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3년 對헝가리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전년대비 164.8% 증가한 1억 2,991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2004년에는 전년대비 94.9% 증가한 2억 5,312만 달러에 달함.
 - 헝가리 인근의 체크와 폴란드 수출에 있어서도 무선통신기기가 3대 수출품이었고, 2004년 들어 150~200% 내외의 급속한 수출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헝가리와 근접하고 있는 서유럽의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대한 수출에서는 무선통신기기가 각각 1대와 2대 수출품이었으며, 발칸의 루마니아와 CIS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에서는 각각 2대와 3대 수출품이었음.
- 이와 같은 헝가리와 그 인근시장으로의 무선통신기기 수출실적을 감안하면, 자연스럽게 중부유럽은 물론 EU와 발칸 및 CIS 시장의 수출거점으로 헝가리 활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됨.

- 중부유럽에 위치한 헝가리는 서유럽의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독일과도 근접하고 있으며, 발칸지역의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또한 헝가리는 CIS의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근접한 러시아와 아직도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3) 소프트웨어

□ 舊사회주의 체제의 동구권에서 헝가리는 전통적으로 컴퓨터 분야의 선두 주자였으며, 당시 R&D 투자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었음.

- 헝가리는 1963년부터 프랑스 업체로부터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컴퓨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1959년에 처음으로 구소련에서 생산된 컴퓨터를 과학아카데미에서 운영함.
-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에서 과학아카데미 산하 물리중앙연구소(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Physics; KFKI)가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은 컴퓨터·자동화연구소(Computer and Automation Research Institute; SZTAKI)가 담당하였음.
- 헝가리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GDP 대비 2.5%를 R&D에 지출하였는데, 이는 당시 국제기준에 비추어 보아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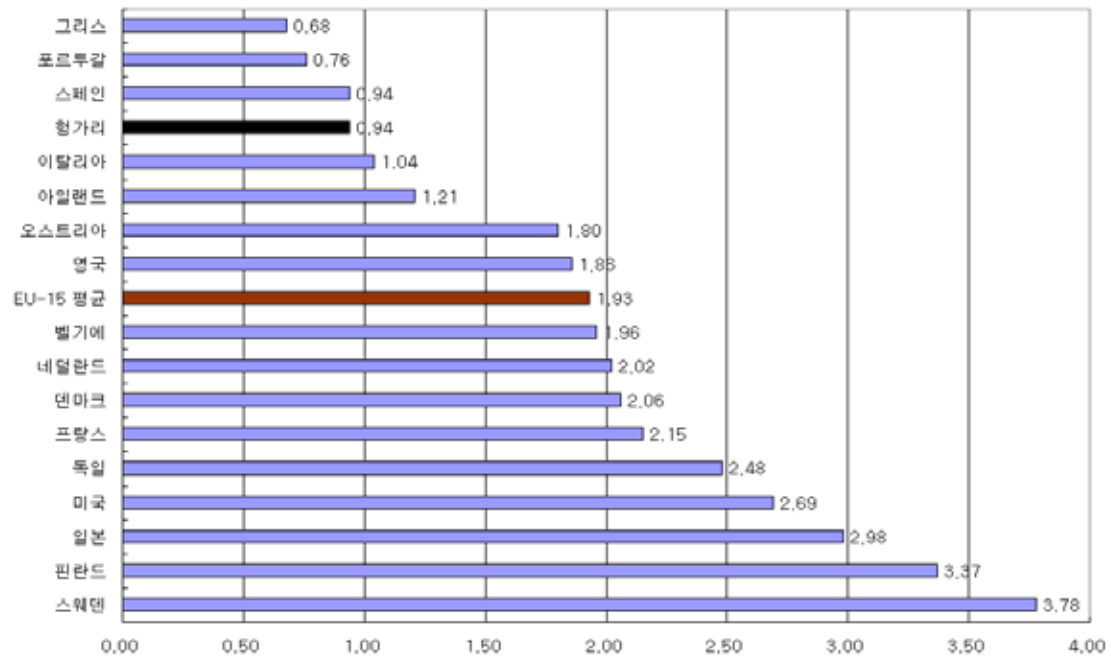
□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이후 전환기 경기침체와 혼란 등으로 R&D 투자가 급속히 저하되었다가 최근 들어 다소 회복되고 있음.

- 舊사회주의 시절 GDP 대비 2.5%에 달했던 R&D 지출은 1996년에 0.7%까지 축소되었으며, 연구개발 종사자 수는 53.2% 감소하였고, 특히 기업 부문의 연구개발 종사자 수는 76.6% 감소하였음.
- R&D 지출은 1997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GDP 대비 1.0%까지 회복되었으나, EU 15개 기존회원국 평균 1.93%에 비해 크

게 뒤처짐.

<그림 1> 세계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규모

(단위: GDP 대비 %)



자료: 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KSH)

4. 한-헝가리 IT산업협력 구체 방안

가. IT산업협력 동향

- ☐ 한국의 정보통신부와 헝가리의 IT부는 지난 2001년 12월 부다페스트에서 양국간 IT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한-헝가리 IT협력 포럼을 개최하였음.
- ☐ 두 차례의 양국간 IT 차관회담을 열고 양국의 IT부문 개발과 양국간 인적교류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함.
 - 2002년 3월 IT 차관회담에서는 한-헝가리 IT 공동연구가 본격 추진되었으며, IT부문 기술 및 인력교류 방안이 논의됨.

- 2004년 10월 IT 차관회담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전자정부, IT인력교류 및 R&D 등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이 교환되었는데, 특히 KT와 Matav(헝가리 제1 통업업체)간 초고속인터넷 솔루션 관련 협력 및 e-Government, 정보보호 협력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짐.
- 2004년 11월 정보통신부는 동유럽 IT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 14개 IT핵심기업으로 구성된 IT 협력단을 헝가리에 파견함.

나. IT산업협력 구체 방안

1) 협력주관기관 선정

- 한국과 헝가리 양국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구현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관계의 구축을 위해 정부간, 기업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 무역과 투자증진을 통한 기업간 협력관계 강화 등 기업 주도의 양국간 협력증대가 자연스럽게 바람직하나 양국간 IT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초기 단계에는 정부간 협력강화가 중요함.
- 이러한 정부간 협력강화와 기업간 협력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협력주관기관이 필요함.
 - 기존의 조직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한-헝가리 경협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IT산업협력에 보다 전문화된 조직이 인터넷서비스, 무선통신 및 소프트웨어 부문의 양국간 협력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바, 양국간 일반적인 경협을 주관하던 조직을 IT부문으로 전문화하는 방안과 IT부문의 조직을 헝가리와의 협력에 전문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선정된 협력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상기 과제 수행을 위해 IT 협력단 파견, IT 비즈니스포럼 상호 개최, IT 정책자문단 파견, IT 전문인력 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토록 함.

2) IT 차관회담 정례화

- ☐ 지금까지 두 차례 열린 한-헝가리 IT 차관회담을 매년 정례화 하여 IT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양국간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도록 함.
 - 협력주관기관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그 추진을 지원하며, 추진성 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논의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한국의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보급 현황과 전자정부 구축현황 등을 홍보하고 한국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이 헝가리의 국가정보화 프로젝트 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IT 차관회담을 활용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헝가리 IT 전문 인력의 한국 초청 연수와 한국의 IT 정책 자문단 헝가리 파견 등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3) IT 비즈니스 포럼 개최 및 IT 협력단 파견

- ☐ 한국 IT업체들의 헝가리 진출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법으로 헝가리에서 IT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적극 검토해야 함.
 - 특히 한국의 인터넷서비스 업체와 무선통신 업체들을 중심으로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함.
 - 헝가리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과의 면담, 1대1 비즈니스 상담 및 현지 업체와의 공동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현지 기업인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함.
- ☐ IT 협력단 파견을 통해 한국 업체와 헝가리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공동 관심분야를 개발하고 산학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함.
 - 특히 헝가리의 소프트웨어 부문에 있어서의 한국기업과 헝가리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이 유망함.

4) IT 인력교류 활성화

- 한국과 헝가리 IT부문의 상호보완적 연구인력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협력주관기관이 한국의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들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기술·경제대학(Budapest Univ. of Technology & Economics; BUTE)에 파견, 헝가리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하게 함.
- 또한 BUTE를 통해 헝가리의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한국의 관련 업체에 파견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토록 함.
- 장기적으로 BUTE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부다페스트에 소프트웨어 관련 R&D 센터 개설을 추진, 한국의 하드웨어와 헝가리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